

가차없이 바쁨을 제거하라

Get rid of busyness relentlessly

마가복음 5장 1-17절

-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맺 수 없게 되었으니
 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15.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6.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17.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

1. 오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며 생각해봅시다.
 - 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4)
 - ②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5)
 - ③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5)
 - ④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3)
2. 코리 텐 봄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 거라사 군대 귀신과 현대의 바쁨에 대해 유사점 혹은 경험을 나눠봅시다.
3. 열심과 바쁨은 다릅니다. 당신이 바쁘거나 바빴던 적이 있다면, 그 ‘바쁨’이 당신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나눠봅시다.
4. 17절에, 돼지 떼가 죽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나요? 그 결과가 현대인의 바쁨의 결과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